

안녕하십니까.

2025년 을사년이 힘차게 시작을 알렸습니다. 제6회 대원문화재단 신년음악회를 찾아 주신 모든 분들에게 반가운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클래식 음악과 음악가들에게 한결같은 애정을 보내주시는 메세나 기업인들과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을 모시고 함께 하는 대원문화재단 신년음악회가 여섯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한 해의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스스로를 응원합니다. 일 년을 잘 보내기 위해, 대원문화재단은 아름다운 음악 선물로 새해의 도전을 헤쳐나갈 에너지를 충전해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된 지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만, 우리 음악인들의 일상은 해가 바뀌고 계절이 오가는 것과 관계없이 꾸준한 정진으로 채워집니다. 이는 자신이 목표로 세운 예술의 높은 이상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순수함과 열정으로 가득 찬 이들의 노력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공감하고, 그들이 만들고 있는 예술의 보편적 가치를 모든 이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대원문화재단의 목표가 오늘의 음악회에서 다시 한 번 보여지길 희망합니다.

대원문화재단 신년음악회가 엄선한 올해의 프로그램은 베토벤과 시벨리우스의 걸작들입니다. 베토벤의 ‘트리플 콘체르토’는 협연자 세 명이 동시에 무대에 서는 특이한 구성의 작품이며, 후반부에 연주되는 곡은 핀란드를 대표하는 작곡가 시벨리우스의 가장 유명한 교향곡 2번입니다. 올해의 협연자 세 분은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명성과 실력을 인정받는 인물들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인 피아니스트 김대진 (제11회 대원음악상 대상),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역사상 최연소 교수로 임용된 바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 (제10회 대원음악상 신인상), 독일 뒤셀도르프 심포니 수석주자로 활약한 후 귀국해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첼리스트 김두민이 수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마에스트로 요엘 레비와 KBS교향악단이 이들과 함께 진한 감동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음악은 보이지 않기에, 그리고 들리는 순간 사라져 버리기에 더욱 소중합니다. 그 찰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음악인들을 한결같이 지켜주시는 메세나 회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오늘 밤이 잊지 못할 추억으로 간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대원문화재단 이사장 김 일 곤




2025 대원문화재단 신년음악회

DAEWON NEW YEAR'S CONCERT 2025



지휘 요엘 레비
Yoel Levi



바이올린 임지영
Ji Young Lim



첼로 김두민
Doo-Min Kim



피아노 김대진
Daejin Kim

연주 KBS교향악단 KBS Symphony Orchestra



2025년 1월 11일(토) 저녁 5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DAEWON
NEW YEAR'S CONCERT
2025

03

베토벤 | 삼중 협주곡 C장조, Op. 56

⌚ 35'

L. v. Beethoven | Triple Concerto for Violin, Cello, and Piano in C Major, Op.56

I. Allegro 빠르게

II. Largo 아주 느리게

III. Rondo Alla Polacca 폴란드 풍의 론도

Intermission

⌚ 15'

시벨리우스 | 교향곡 제2번 D장조, Op.43

⌚ 45'

J. Sibelius | Symphony No.2 in D Major, Op.43

I. Allegretto 조금 빠르게

II. Tempo andante, ma rubato 느리게, 그러나 자유로운 빠르기로

III. Vivacissimo 아주 생기있고 빠르게

IV. Finale: Allegro moderato 피날레: 적당히 빠르게

* 본 공연의 프로그램은 아티스트의 요청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Program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PROGRAM NOTE

베토벤 | 삼중 협주곡 C장조, Op.56

L. v. Beethoven | Triple Concerto for Violin, Cello, and Piano in C Major, Op.56

작품의 창작 의도를 아는 것은 그 곡의 악보를 파악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흔히 '삼중 협주곡'이라 불리는 이 협주곡은 누구에게나 그 독특한 발상의 시발점이나 계기가 궁금해지기 마련이다. 베토벤의 시대보다 과거로 눈을 돌리면 콘체르토 그로소, 즉 합주 협주곡의 정신에서 작품의 아이디어를 찾아야 할 듯 하지만, 솔리스트와 오케스트라의 대화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소위 '바로크적 스타일로의 회귀'는 베토벤의 관심사와 거리가 있다. 제자인 신틀러에 의하면 베토벤이 염두에 둔 독주자는 루돌프 대공(피아노), 카를 아우구스트 자이틀러(바이올린), 안톤 크라프트(첼로) 등이었다고 한다. 작곡가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 이들이 작품의 비공식적인 초연에 참가했다고 여겨지나, 직접적인 위촉이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요컨대 색다른 음악적 모험이 들어있는 이 협주곡은 바로크의 전통과는 다른 방법으로 솔리스트 그룹과 오케스트라의 대화를 시도한 실험작이라고 보는 것

이 옳을 듯하다. 특별히 화려하고 비중있게 설정된 첼로 파트는 베토벤의 최초 구상이 첼로 협주곡이었을지도 모른다는 흥미로운 짐작을 하게 만든다.

알레그로(Allegro)의 1악장은 평이한 느낌의 1주제가 첼로와 더블베이스로 제시되며, 이와 비슷하게 평화로운 분위기의 2주제는 바이올린이 연주한다. 첼로 주자가 첫 포문을 열면 나머지 두 악기가 차례로 모티브를 받아 연주하며 발전부 직전에 긴밀한 앙상블로 화려한 음향을 과시한다. 발전부는 셋잇단음표의 스타카토 진행이 인상적이며, 재현부를 지나 코다에서는 피우 알레그로(piu allegro)로 속도감있는 마무리를 한다. 2악장 라르고(Largo)는 짧지만 첼로 독주가 리드하는 아름다운 서정성이 돋보인다. 피아노는 주로 아르페지오를 연주하며 바이올린은 주제가 재현될 때 고음의 장식을 맡는다. 3악장 론도는 알라 폴라카(Rondo Alla Polacca)의 지시어로, 폴로네즈 리듬의 즐거운 분위기다. 첼로가 고음역으로 제시하는 첫 주제와 탄력있는 도약의 2주제, 바이올린이 화려한 음색을 자랑하는 a단조의 3주제까지 제시된 후, 2주제의 재현을 거쳐 모든 악기가 열정적으로 클라이맥스로 돌진하는 빠른 코다가 이어진다.

시벨리우스 | 교향곡 제2번 D장조, Op.43

J. Sibelius | Symphony No.2 in D Major, Op.43

“언어가 끝난 후 비로소 음악이 시작된다” 는 이야기도 있지만, 말이나 글로 설명할 수 없는 의미를 더욱 잘 전달하는 것이 음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경험한다. 국민음악 작곡가라 불리는 후기 낭만 시대 북유럽과 동유럽의 음악가들은 뚜렷한 메시지를 통해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그들의 민족이 지닌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다. 구체적인 묘사가 담긴 표제음악을 통해 듣는 이를 설득하거나 추상적인 절대음악을 통해 간접적으로 향토적 아름다움을 표현하기도 했는데, 핀란드를 대표하는 작곡가 시벨리우스는 이 두 가지 전달방식을 모두 이용해 성공을 거두었다. 슈만이나 차이콥스키처럼 법률학교를 다니다 음악가로 전향한 이력을 지니고 있는 그는 헬싱키 음악원에서 공부한 후 베를린과 빈에서 학업을 이어갔다. 28세에 고향으로 돌아와 창작에 전념했지만, 초기 작품에서 독일 낭만파의 특징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었던 시벨리우스가 핀란드 고유의 정서와 민속적 요소를 대변하는 인물이 된 것은 1899년 12월에 초연해 최고의 히트를 기록한 교향시 ‘핀란드야’ 이후였다. 핀란드의 국민영웅을 넘어 미국에까지 알려지기 시작하며 주가를 올리던 시벨리우스가 1901년, 바쁜 일상 속 짬을 내 마련한 이탈리아에서의 휴가 기간 동안 만든 곡이 교향곡 2번이다. 선이 굵은 영웅적 분위기와 특유의 어둡고 엄숙한 느낌 외에 전곡을 감싸고 있는 따뜻한 기분은 시벨리우스가 작곡 당시 지중해에서 받은 밝은 인상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1902년 3월 8일 작곡가의 지휘로 헬싱키에

서 초연된 이 곡은 그가 만든 일곱 개의 교향곡 중 가장 대규모이며 조국의 위대한 자연에게 바치는 헌사처럼 느껴진다.

폭넓은 느낌의 4분의 6박자로 시작하는 알레그레토(Allegretto)의 1악장은 매우 목가적이며, 오보에와 클라리넷이 2중주로 연주하는 1주제는 전곡을 지배하는 주요 악상이 된다. 2주제 역시 목관악기로 제시되는데, 현악기들의 정교한 반주가 묘한 긴장감을 나타내며 전개된다. 템포 안단테, 마루바토(Tempo andante, ma rubato)의 지시어로 된 2악장은 매우 큰 규모로, 검푸른 핀란드의 숲과 신비로운 호수의 모습이 연상되는 교향시적인 악장이다. 작곡가 자신은 푸시킨의 ‘석상손님’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1주제는 바순으로, 2주제는 현악기로 제시되며 매우 대조적인 성격을 지니나 모두 민요적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조국의 죽음과 부활을 음악으로 설명한 악장이라는 의견도 있다. 비바치시모(Vivacissimo)의 3악장은 스케르초(scherzo)로, 공격적인 음표들의 빠른 움직임으로 시작한다. 긴박한 현악기들의 움직임을 지나면 오보에가 목가적인 선율을 한가하게 노래하는 트리오가 나타나며, 다시 첫 부분으로 돌아와 긴장감을 고조시키던 악상은 어느새 부드럽고 풍성한 사운드로 변신해 피날레로 멋지게 이어진다. 소나타 형식에 의한 4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Allegro moderato)는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듯한 첫 주제와 동경에 찬 단조의 2주제가 주 재료이며, 두 주제 모두 앞선 악장의 모티브들과 많은 유사성을 지녀 통일감을 준다. 교향곡 전체를 통해 조성된 긴장감은 감성의 극단적인 고조를 통해 멋지게 폭발하며, 장엄한 엔딩은 듣는 이들을 감동으로 이끈다.

글 / 김주영 (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 피아니스트)

CONDUCTOR
YOEL LEVI



지휘 요엘 레비

●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KBS교향악단의 제8대 음악감독 및 상임지휘자로 활약한 요엘 레비는 방대한 레퍼토리와 열정적인 무대, 유려한 곡 해석으로 한국 관객들에게 잘 알려진 세계적인 지휘자이다.

그는 뉴욕 필하모닉, 보스턴 심포니, 시카고 심포니, 베를린 필하모닉, 런던 심포니 등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악단들을 지휘했다. 뿐만 아니라 시카고 리릭 오페라를 비롯해 피렌체, 제노바, 프라하, 브뤼셀, 프랑스 등지의 세계적인 오페라단들과 함께 무대에 올랐다.

세계 유수의 음반 레이블에서 다양한 오케스트라, 협연자와 함께 40장 이상의 음반을 발매했으며, 이 중 30장의 음반은 애틀랜타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텔락 레이블에서 발매했다. 2018년 KBS교향악단과 함께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말러 교향곡 제9번 실황 음반을 발매하기도 했다.

루마니아 태생으로 이스라엘에서 자란 요엘 레비는 텔아비브 음악원, 예루살렘 음악 아카데미, 길드홀 음악 연극 학교에서 수학했으며, 1978년 브장송 국제 젊은 지휘자 콩쿠르 우승으로 이름을 알렸다.

6년간 로린 마젤의 어시스트 겸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상주 지휘자로 경험을 쌓았고, 이후 12년간 애틀랜타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서 악단을 이끌었다. 브뤼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지휘자, 일 드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를 거쳐 이스라엘인 최초로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 객원 지휘자로 임명되기도 했다. KBS교향악단 제8대 음악감독을 역임하며 수차례의 유럽투어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현재 이스라엘 하이파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예술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PIANIST

DAEJIN KIM

피아노 김대진

- 김대진은 피아니스트로 출발해 교육자이자 지휘자까지 음악의 전 영역에 걸쳐 활동하며 한국 클래식이 세계무대를 관통하는 수준을 갖추는데 공헌하며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1973년 불과 11세의 나이에 국립교향악단과 협연하며 화제를 모은 그는 미국 줄리아드 음악대학에서 수학하면서 1985년 로베르 카자드쥐 국제 피아노콩쿠르(現 클리블랜드 국제콩쿠르)에서 1위를 거두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스위스 티보 바르가 국제음악제 등 초청연주, 국내외 정상급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을 비롯해 2000년 베토벤 협주곡 전곡 1일 연주회 등과 같이 스스로 기획한 연주에 이르기까지 열정적인 노력을 통해 청중의 감탄과 찬사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중견 피아니스트로서 한국 음악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교육자로서도 그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 1994년부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손열음, 김선욱, 문지영 등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젊은 피아니스트들을 길러냈고 부조니, 리즈, 퀸 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를 비롯하여 세계 유수의 음악 콩쿠르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2014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루빈스타인 국제콩쿠르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한국 음악계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2008년부터는 수원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로 취임한 이래 2009년 뉴욕 카네기홀 연주, 2012년 국내 교향악단 최초의 전국 9개 도시 순회, 2014년 유럽 투어와 이탈리아 메라노 페스티벌 공연, 2015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 2016년 오스트리아 린츠 브루크너 페스티벌 공연 등 쉴 틈 없이 활동해 왔다. 음악가로서 그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수원시립교향악단을 세계무대의 품격에 손색없는 수준으로 변모시키며 세계적인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CELLIST

DOO-MIN KIM



첼로 김두민

● 첼리스트 김두민은 깊은 울림이 빛나는 연주로 사랑받으며 솔리스트와 실내악 연주자로서 꾸준히 한국과 유럽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향, 인천시향, 경기필하모닉, 대전시향, 청주시향,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와 협연했고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 무대에 올랐으며, 평창대관령음악제에 정기적으로 초청받아 연주하고 있다. 2018년에는 금호아트홀에서 피아니스트 김태형과 베토벤 첼로 소나타 전곡을 평단과 청중의 호평 속에 선보인 바 있다.

아스펜 뮤직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핀란드 라디오 오케스트라, 헬싱키 필하모닉, 뮌헨 체임버 오케스트라, 헝가리 필하모닉, 타피올라 체임버 오케스트라, 뒤셀도르프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포함한 유럽 굴지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했으며,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는 앙드레 프레빈의 지휘로 노르웨이와 독일에서 성공적으로 순회공연 협연을 올리기도 했다.

한국에서 이미 동아음악콩쿠르, 안익태 첼로 콩쿠르를 우승하며 일찍이 두각을 나타낸 김두민은 아스펜 협주곡 콩쿠르에서 우승, 파울로 국제 첼로 콩쿠르에서 상위 입상하며 국제 콩쿠르 무대에서도 성공적으로 데뷔하였다. 특히 베르비에 음악 페스티벌에서 APCAV상을, 유럽문화재단에서 차세대 예술가상을 수상하며 예술가적 능력을 인정받았다.

2000년부터 안네 소피 무터 재단의 후원을 받게 되었으며, 특히 안네 소피 무터와 다수의 실내악 연주를 함께하며 그로부터 큰 음악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2011년부터 결성된 무터 비르투오지 앙상블의 멤버로서 유럽, 중국, 대만,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순회공연을 마쳤다.

김두민은 서울에서 태어나 아홉 살에 첼로를 시작했으며 예원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한 후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에서 디플롬 과정을, 쾰른 국립음대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였다. 장형원, 정명화, 티만 비크, 프란스 헬머슨을 사사했으며, 스티븐 이설리스, 린 하렐, 아르토 노라스, 보리스 페르가멘시코프의 마스터 클래스를 참가하여 예술적인 영감과 이해를 넓혔다.

그는 2004년부터 2022년까지 독일 뒤셀도르프 심포니 오케스트라 첼로 수석을 역임했으며 2022년부터 서울대 음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Florian Leonhard 한국지사 후원으로 Ferdinando Garimberti 1933년산 첼로를 사용 중이다. 2024년에는 쇼스타코비치, 힌데미트, 브리튼의 작품이 수록된 그의 첫 음반이 발매되었다.



VIOLINIST
JI YOUNG LIM

바이올린 임지영

- 한국인 최초로 쾰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한 임지영은 놀라운 집중력, 대담하면서도 안정된 연주, 단련된 테크닉 등 다양한 강점들을 바탕으로 여러 국가에서 참가한 경쟁한 후보자들 사이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우승하며 전세계에 이름을 알렸다.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를 거쳐,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영재 입학하여 김남윤을 사사하며 예술사 과정을 졸업하였고, 최고연주자 과정 중 도독하여 크론베르크 아카데미에서 석사 및 프로페셔널 연주자 과정을 마치고, 이후 쾰른 국립음대에서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했다. 2015년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의 금호음악인상, 한국언론인연합회의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2016년 대원문화재단의 대원음악상 신인상을 수상하였고, 2021년에는 포브스가 선정한 '30세 이하 아시아 리더'에 유일한 클래식 연주자로 이름을 올렸다.

만 14세에 금호영재콘서트로 데뷔한 이래로 일찍이 다양한 무대에 오르며 국내외 관객들을 만나온 임지영은 프랑크푸르트 라디오심포니 오케스트라, 뮌헨 캄머 오케스트라, 인디애나폴리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브뤼셀 필하모닉, 룩셈부르크 필하모닉,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NHK 심포니 오케스트라,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 마린스키 오케스트라, 아마가타 심포니 오케스트라, 필하모니아 포즈난, 툴루즈 카피톨 오케스트라,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 나고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유수의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을 통해 개성있는 솔리스트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안드라스 슈프, 기돈 크레머, 스티븐 이설리스, 알렉산더 쉐리, 데이비드 진만, 투간 소키에프, 알렉산더 라자레브, 크리스토퍼 에센바흐, 케빈 케너, 매튜 리프먼 등 세계적인 음악가들과 연주하며 다채롭고 폭 넓은 음악 세계를 보여주었으며, 피아니스트 임동혁과 함께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등을 녹음한 앨범이 워너 클래식 레이블을 통해 전 세계에 발매되었다.

국내에서는 금호아트홀, 대관령국제음악제 등에서의 리사이틀 연주에 더하여, 서울시립교향악단, KBS 교향악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수원시립교향악단, 대구시립교향악단 등과 협연하였으며, 지휘자 정명훈이 이끄는 원코리아오케스트라에서 악장으로 연주하였고, 금호아시아나솔로이스츠, 평창겨울음악제, 포항음악제 등의 무대에서 실내악 연주도 선보인 바 있다. 또한, 홍콩아츠페스티벌, 코펜하겐 썸머 페스티벌, 그슈타드 메뉴힌 페스티벌, 평창대관령음악제, 홍콩 HKGNA 뮤직 페스티벌, 예술의전당 음악축제 등 국내외 페스티벌 무대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2019년 3월에 방한한 벨기에 국왕 주최 음악회 무대에 오르고, 4월에는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행사에서 연주하는 등 여러 국가적인 행사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클래식 아티스트로서 활약하였다. 코로나 19로 전 세계가 고통받았던 2020년에는 바흐와 이자이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연주라는 대장정을 완주하였고, 이후 다양한 독주 및 협연 무대에 삶과 동시에, 2021년부터 '사계 2050 The [uncertain] Four Seasons'이라는 프로젝트를 이끌며, 음악을 통해 기후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임지영은 현재 비에냐프스키가 사용했던 바이올린인 1717년 제작 스트라디바리 '사세르노(Sasserno)'를 일본음악재단으로부터 대여받아 연주하고 있으며, 2023년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과에 최연소 조교수로 전격 임용, 본격적인 교편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오케스트라 KBS 교향악단

● KBS교향악단은 1956년 창단되어 수준 높은 연주를 통해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 발전을 선도해 왔다. 임원식 초대 상임지휘자를 시작으로 홍연택, 원경수, 오토마 마가, 정명훈, 드미트리 키타옌코, 요엘 레비 등 세계 최정상급 지휘자들이 KBS교향악단을 이끌었고, 2022년 제9대 음악감독으로 피에타리 잉키넨 지휘자가 취임하며 한국을 넘어 세계 정상급 교향악단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국립교향악단 시절(1979년) 한 달간 미국 21개 도시 순회연주를 통해 한국 교향악단의 저력을 보여준 것은 지금도 문화외교의 큰 성과로 기록되어 있다. 이후 일본 6개 도시 순회연주(1985), UN 창설 및 광복 50주년 기념 UN 총회장연주(1995), 남북교향악단 평양 합동연주(2002) 등 국가적 연주회를 통해 국위를 선양해 왔고, 2012년 전문예술경영체제를 갖춘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며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KBS교향악단은 교향악부터 실내악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통해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수준 높은 연주를 들려주는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시즌 및 주제별로 관객과 소통하는 초청, 기획연주회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까지 매년 100회 이상의 공연으로 10만 명이 넘는 관객에게 고품격 음악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공연 현장에서 함께할 수 없는 관객을 위해 KBS교향악단의 연주는 KBS TV와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중계되며, 공연 외에도 방송프로그램 및 콩쿠르 사업, 지역과 연계한 음악제, 기업 후원의 공익연주회 등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국민의 교향악단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

2018년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 레이블인 '도이치 그라모폰(DG)'에서 실황음반을 발매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이어 체코 슬로바키아 건국 100주년 기념연주회, 2019년 한국 폴란드 수교 30주년 기념 순회공연과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페라인 황금홀 특별연주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대한민국 클래식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 코로나 시대에도 KBS의 온라인 4채널을 모두 동원한 무관중 공연으로 2만3천여 명 실시간 관람 기록을 세우고, 클래식 음악 아카이브 '디지털 K-Hall'을 오픈하며 고품격 음악콘텐츠의 무료 제공 기틀을 마련했다. 국제교류재단과 클래식 음악 한류 홍보영상을 공동제작하여 전 세계 재외공관에 배포하고, 통신사와 클래식 음악 소재의 5G VR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KBS교향악단은 클래식 음악의 디지털콘텐츠 허브로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KBS교향악단은 언제나 차별화된 연주와 창의적인 기획을 통해 국민과 공감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클래식 문화브랜드로 함께 할 것이다.

DAEWON CULTURAL FOUNDATION NEW YEAR'S CONCERT



제1회 대원문화재단 신년음악회

2018.01.25(목) 저녁 8시 롯데콘서트홀

지휘 | 바실리 시나이스키

피아노 | 백건우

연주 | 서울시립교향악단

프로그램

차이콥스키 | 피아노 협주곡 제1번 b[♭]단조 작품 23

차이콥스키 | 교향곡 제5번 e단조 작품 64



제2회 대원문화재단 신년음악회

2019.01.04(금) 저녁 8시 롯데콘서트홀

지휘 | 요엘 레비

피아노 | 조성진

연주 | KBS교향악단

프로그램

라흐마니노프 | 피아노 협주곡 제3번 d단조 작품 30

차이콥스키 | 교향곡 제6번 b단조 작품 74 '비창'



제3회 대원문화재단 신년음악회

2020.01.05(일) 저녁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정명훈

바이올린 | 클라라 주미 강

연주 | 서울시립교향악단

프로그램

브루흐 |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g단조 작품 26

브람스 | 교향곡 제1번 c단조 작품 68

17



제4회 대원문화재단 신년음악회

2023.01.07(토) 저녁 7시 30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성시연

피아노 | 김선욱

연주 | KBS교향악단

프로그램

브람스 | 피아노 협주곡 1번 d단조 작품 15

슈베르트 | D.956 아다지오 (박해진 편곡)

라벨 | 볼레로 M.81



제5회 대원문화재단 신년음악회

2024.01.06(토) 저녁 5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성시연

피아노 | 손열음

연주 | 서울시립교향악단

프로그램

리스트 | 피아노 협주곡 제1번 E^b장조, S.124

샤브리에 | 스페인 랩소디

에네스쿠 | 루마니아 랩소디 제1번, Op.11

리스트 | 헝가리 랩소디 제2번 c[#]단조, S.244/2

DAEWON MUSIC AWARDS



제1회 대원음악상 시상식 (2006.12.26)

- 대원음악상 대상 | 정명훈 (지휘)
- 대원음악상 작곡상 | 강석희
- 대원음악상 공로상 | 이강숙 (음악평론)



제2회 대원음악상 시상식 (2007.12.26)

- 대원음악상 대상 |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 대원음악상 작곡상 | 진은숙
- 대원음악상 장려상 | 강승민 (첼로)
성민제 (더블베이스)
장유진 (바이올린)



제3회 대원음악상 시상식 (2008.12.11)

- 대원음악상 대상 | 백건우 (피아노)
- 대원음악상 연주상 | 콰르텟21
- 대원음악상 작곡상 | 박인호
- 대원음악상 특별공헌상 | 세종솔로이스츠



제4회 대원음악상 시상식 (2009.12.04)

- 대원음악상 대상 | 강동석 ·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 대원음악상 연주상 | 양성원 (첼로)
- 대원음악상 특별공헌상 | 임헌정 (지휘)



제5회 대원음악상 시상식 (2010.12.15)

- 대원음악상 대상 | 강효 · 대관령국제음악제
- 대원음악상 연주상 | 연광철 (베이스)
- 대원음악상 작곡상 | 백병동



제6회 대원음악상 시상식 (2011.12.14)

- 대원음악상 대상 | 서울시립교향악단
- 대원음악상 연주상 | 서울모테트합창단
- 대원음악상 신인상 | 조성진 (피아노)
- 대원음악상 장려상 | 박종민 (베이스)



제7회 대원음악상 시상식 (2013.1.21)

- 대원음악상 대상 | 조수미 (소프라노)
- 대원음악상 연주상 | 클라라 주미 강 (바이올린)
- 대원음악상 장려상 | 전민재 (작곡)
- 대원음악상 특별공헌상 | 김남윤 (바이올린)



제8회 대원음악상 시상식 (2014.1.13)

- 대원음악상 대상 | 정경화 (바이올린)
- 대원음악상 연주상 | 사무엘 윤 (베이스바리톤)
- 대원음악상 장려상 | 이수빈 (바이올린)
- 대원음악상 특별공헌상 |故 이운형 (세아그룹 회장)



제9회 대원음악상 시상식 (2015.1.12)

- 대원음악상 대상 | 연광철 (베이스)
- 대원음악상 연주상 | 김선욱 (피아노)
- 대원음악상 신인상 | 노부스 콰르텟



제10회 대원음악상 시상식 (2016.3.7)

- 대원음악상 대상 | 김민 (지휘, 바이올린)
- 대원음악상 신인상 | 임지영 (바이올린)
- 대원음악상 특별공헌상 | 신수정 (피아노)



제11회 대원음악상 시상식 (2017.3.6)

- 대원음악상 대상 | 김대진 (피아노, 교육, 지휘)
- 대원음악상 연주상 | 성시연 (지휘)
- 대원음악상 특별공헌상 | 박영희 (작곡)



제12회 대원음악상 시상식 (2019.4.16)

- 대원음악상 대상 | 조성진 (피아노)
- 대원음악상 신인상 | 양인모 (바이올린)
- 대원음악상 특별공헌상 | 이규도 (성악)



제13회 대원음악상 시상식 (2024.5.20)

- 대원음악상 대상 | 손열음 (피아노)
- 대원음악상 연주상 | 김봄소리 (바이올린)
- 대원음악상 신인상 | 임윤찬 (피아노)

ABOUT DAEWON CULTURAL FOUNDATION

21

장학사업

● 대원문화재단은 한국 음악인들이 예술적 기량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전도유망한 젊은 음악인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설립 초기에 '대원예술인' 제도를 마련하여 피아니스트 김선욱, 피아니스트 김태형 등 선정된 음악인에게 최소 1년간의 장학금을 포함하여 국내외 음악 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피아니스트 임동혁, 피아니스트 김준희, 작곡가 신동훈을 후원하였으며, 2020년에는 2019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에서 15세의 최연소 나이로 1위를 차지한 피아니스트 임윤찬을 후원하는 등 클래식 음악계의 유망한 젊은 음악인들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김태형



임윤찬

ABOUT DAEWON CULTURAL FOUNDATION

후원결연

● 대원문화재단은 음악인들이 안정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기량 향상에 보다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이 음악인을 후원하도록 주선하는 등 메세나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하는 기업을 꾸준히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음악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원문화재단은 피아니스트 김준희와 포니정 재단, 바이올리니스트 장유진과 에이스테크놀로지,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케이디캠, 피아니스트 김종윤과 (주)올림푸스한국, 바이올리니스트 신현수와 (주)경농, 첼리스트 이세인과 익명의 후원자, 베이스리스트 성민제와 (주)세라젬,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과 (주)동성코퍼레이션(구 동성홀딩스), 소프라노 임선혜와 (주)트리코인베스트먼트, 주최자 성시연과 (재)설원량문화재단, 피아니스트 임동혁과 (재)설원량문화재단, 피아니스트 문지영과 대신증권, 바이올리니스트 이수빈과 시공테크,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과 아주산업 등 음악인들과 기업의 결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 최초로 2015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한 피아니스트 조성진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케이디캠(주)으로부터 지속적인 후원을 받고 있으며, 최근 티보르 버르거 콩쿠르에서 역대 최연소 우승을 차지한 14세의 바이올리니스트 김서현이 (주)아주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성진



김서현

음악제 및 음악인(단체) 후원

● 대원문화재단은 클래식음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돕고 자 정통 클래식 음악제와 공연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매해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를 후원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대관령국제음악제'를 매해 후원하고, 2023년부터 '통영국제음악제'를 후원하여 수준 높은 음악제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뜻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천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제야음악회, 피아니스트 백건우 베토벤 소나타 전곡 연주회, 베이스 연광철 리사이틀, 바이올리니스트 김남윤 정년 기념 음악회 등 높은 음악성을 추구하고 지켜내고자 하는 우리 음악인들의 공연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클래식 음악의 청중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음악인들과 음악단체들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음악계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 3월에는 예술교육 석좌기금을 조성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 이강숙 교수를 지원하였습니다. 우수한 음악평론가 양성을 위한 노력에도 뜻을 함께 하여 2010년~2012년 객석예술평론상을 후원하는 등 한국 클래식음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대관령국제음악제

ABOUT DAEWON CULTURAL FOUNDATION

교육지원사업



뮤직앤컬처



지휘캠프

● 대원문화재단은 음악전공자와 전문음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습니다. 2006년부터 (사)한국지휘자협회가 주최하는 '지휘캠프'를 3년 동안 후원하여 신진 지휘자들이 국내외 저명한 지휘자들로부터 집중 교육과 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으며, 한국 피아니스트들을 위한 열린 광장인 '오픈 피아노 포럼'을 후원하였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 예술문화기금,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발전기금을 기부하여 국내 음악대학의 시설 및 연구 환경 개선을 돕는 등 음악인을 위한 전문교육의 발전에 뜻을 더하였습니다.

또한, 대원문화재단은 국내 기업인들과 클래식 음악의 만남을 통한 문화 크리에이티브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해 왔습니다. '뮤직 앤 컬처' 프로그램은 기업인들이 예술애호가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교육과 소통의 장을 제공하여 우리 기업인들이 메세나의 정신을 알고 예술후원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